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미세먼지 공동체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젠 사람들이 외출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체크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다. 홍콩데모의 영향인지 검은 마스크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리, 울겨울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시민들을 괴롭힐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으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지난 20일 내놨다. 한·중·일 3국이 다른 두 나라에 각각 초미세먼지(PM2.5이하)를 얼마나 많이 날려 보냈는지를 측정해 분석한 것이다.

당연히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배출원의 영향이다. 분석 결과 중국의 배출원이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에 끼치는 영향은 32%였고, 일본에 주는 영향은 25%였다. 반면 한국의 배출원이 중국 초미세먼지 발생에 미친 영향은 2%에 불과했고, 일본에 끼친 영향은 다소 높은 8%였다.

일본 배출원이 한국에 미친 영

향은 2%, 중국에 준 영향은 1%였다.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중국의 발생원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제 중국은 한국에 국가안보에서부터 먹는 음식에 이어 숨 쉬는 공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동북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 논의에 의해 2000년부터 추진됐다. 2002년 국립환경연구원이 황해의 공기와 한국내륙의 공기를 비교분석해서 황 화합물의 경우 10~25%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원래 지난해 발간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에 의해 늦어지다가 올 2월에야 한·중·일 환경장관 합의로 성사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꼈던 한국의 초미세먼지 중에 중국배출원의 몫이 32%라는 사실이 공유된 것은 의미가 깊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가 간 관계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의 제조업국가와 13억 인구의 소비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오염된 대기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며 좁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한국은 미세먼지를 더 심하게 뒤집어쓰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자 중국 언론이 기뻐했다는 듯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글로벌타임스(環球時報)는 한국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 요인이 51%라고 소개하며 "한국내의 스모그는 사실상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학자를 내세워 한국 언론이 그동안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고 비난했다. 입증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도 제기했다. 즉 1960~70년대에 한국과 일

본은 고속발전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언론은 대개 자국의 정부 정책을 두둔하게 마련이지만, 중국 언론이 한국 내 요인 51%라는 숫자로 중국 영향 32%를 덮으려는 단순 비교는 지나친 억지다. 한 나라의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어느 특정국가의 영향이 32%라면 이를 어떻게 적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중국도 스모그와의 전쟁을 6년째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일이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중국도 잘 알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의 미세먼지 중 32%가 중국에서 흘러왔다는 걸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두려움을 중국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이제 G-2국가로서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변 국가에 대해 져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중·일은 '미세먼지 공동체'다. 공동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미세먼지 없는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이 걸부된 문제다. 외교부든 환경부든 중국과 접촉할 때 이 점이 귀찮을 정도로 말해야 한다.

社 說

스포츠계 폭력 사라져야 한다

성인 실업팀 선수들이 신체·언어적 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최근 진행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에서 실업팀 운동선수가 당하는 폭력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 1,251명과 실업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 선수 33.9%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으며, 11.4%는 성폭력을 당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 학생 선수의 언어폭력 경험은 15.7%였고 신체폭력과 성폭력 경험은 각각 14.7%, 3.8%였다.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응답했고, 신체폭력을 당해도 67.0%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력 가해자로는 남성 선수에게는 선배 운동 선수가 58.8%, 여성 선수는 교지가 47.5%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여성 선수는 결혼하거나 임신 계획을 세우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받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했다. 실업 선수 86.4%가 합숙소 생활을 경험했고, 대부분 선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계는 여성 지도자 임용을 늘려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 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도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의료로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파트 화재시 주방용 K급 소화기 사용 습관화 해야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

점 이상이기에 재발화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고,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의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

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언제든지 재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